

민족의학으로서의 정체성 갖춰야 '한의학 과학화' 의미!

글 | 정우열 _ 원광대 명예교수 hansong@hansong.net

의학지식은 인간의 질병에 대한 변화과정과 치료방법에 대한 인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 축적은 질병변화와 치료법에 대한 '인식경험'을 통하여 형성되었으며, 인류는 오래전부터 자기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문자가 없었던 원시시대에는 이러한 지식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만 이것이 행위나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경험적 지식을 통하여 얻어진 치료인식을 감성적 인식이라고 한다면, 문자가 발명되면서 경험적 지식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이 축적된 기록에 의해 인식하는 것을 이성적 인식이라 한다. 따라서 의학의 발달은 경험적 인식인 감성적 인식을 거쳐 이성적 인식으로 넘어왔다고 볼 수 있다.

한의학의 객관화, 현대화, 세계화 대두

감성적 인식 의학은 어느 민족이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민속의학으로 문자 발명으로 보진되어 민족의학으로 계승되나 문자가 없는 민족은 다른 문화권으로 흡수되어 소멸된다. 예를 들면 인디언의 파우와우, 유럽계 미국인의 마법, 17세기 스위스의 암마파, 미국 니그로의 부두 등은 민속의학에 속하며, 우리 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비롯하여 중국의학, 고대 그리스의 체액의학, 인도의 아유로베다의학, 우나니 티비의학, 티벳의 장의학, 베트남의 월의학 등은 민족의학에 속한다. 민족의학이란 이처럼 문자를 통해 그 민족 및 그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의학을 체계화한 것으로 거기에는 반드시 인습과 관습의 핵심이 되는 문화적 특징이 내포되어 있으며, 또한 그 민족의 민족정신이 지켜져 내려오고 있

다. 그러나 민족의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라마다 자기 자기의 전통의학으로 계승해 왔으나 문화적 전통이 약한 나라는 문화가 높은 나라에 흡수되었다. 또한 힘이 강한 나라는 침략적 수단으로 다른 나라의 민족의학을 정책적으로 말살시키기도 했다.

지역적으로 서구에서는 그리스의 민족의학이 유럽이나 미국 의학의 뿌리가 되어 서양의 정통의학이 되었고, 동양에서는 중국의 민족의학이 뿌리가 되어 한국, 일본, 월남 등 동양의 정통의학이 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제국의 시대'에 이르러 생의학적 패러다임에 근거한 서양의 정통의학이 본격적으로 동양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동양의 정통의학을 주변의학으로 내몰았다. 동양에서 자기 나라의 민족의학을 제도권의학으로 복원시키기 시작한 것은 2차대전 이후 독립을 쟁취한 이후부터다.

우리 나라에서도 해방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복원시키려는 국민운동이 일어나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한의사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한의학은 서양의 과학적 의학과 공존하면서 동서의학자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대립되었다. 특히 현대과학시대에 접어들면서 한의학의 객관화, 현대화, 세계화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한의학의 발전은 과학화에 있는 것이 아니며 민족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철학적 가치에 있다고 주장하는 보수적 학자들도 있다.

'향약' '심신의학' '체질의학' 거치며 민족의학으로 발전

우리나라 민족의학은 고조선시대에 이미 싹틔기 시작하여 고려시대로 들어오면서 민간의료자료들이 한문으로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 민간방의 특징은 종합의사가 아닌 향약을 위주로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 선생(사진제공 = 연합뉴스)

하는 방서와 처방으로 산간벽지 등의 의서가 없는 지역에서도 간단히 치료할 수 있을 정도였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우리 나라 고유의 민족의학인 '향약의학'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향약의학의 발전은 조선조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태조는 앞서 고려말에 간행된 각종 민간처방들을 정리하여 '향약제생집성방' (1399)을 간행하였고, 그 후 세종은 '향약집성방' (1433)을 간행하였다. 세종은 또 이 시기에 집현전에 명하여 '의방유취' (1477)를 편찬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이러한 향약의학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학의 영향으로 점차 식어가 그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선조대에 이르러 양예수가 '의림촬요'를 편찬하고 선조의 명에 의하여 허준이 '동의보감' (1613)을 출간함으로써 향약의학이 다시 계승되었다. 이 '동의보감'은 허준의 지혜가 총집결되어 있는 의서일 뿐만 아니라 한민족의 우수성이 함축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유산이다.

'동의보감'의 특징을 요약하면 실용주의 사상을 적용하여 각종 의서를 취선하는데 간편하면서도 실용성 있게 하였고, 의학사상의 중심인 정기신론(精氣神論)에 입각한 내장기의 생리기능의 변조와 정신수양의 섭생에 주관을 두고 복약과 치료는 2차적으로 보고 있다. 약제는 국산약재(향약재)의 사용을 권장하였으며, 고방의서를 고증하면서 인용한 학설이나 처방의 출처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처방의 용량에 대해 특히 유의하고 표준용량의 기준을 세우는

한편 복용법까지 명시하고 있다. 특히 허준의 의학사상은 '동의보감' 서문과 집례에 걸쳐 일관되고 있어 자주적인 민족의학의 토대를 완성하고 있다. 그 후 허준의 의학사상은 강명길의 '제중신편' (1778), 황도연의 '방약합편' (1884),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 (1901)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제중신편과 방약합편은 동의보감을 기본으로 그 내용을 발췌하고 체계를 간편하게 하여 임상 의들로 하여금 환자진료를 편리하게 한 책이다.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사상의학의 기본원리가 담겨있는 책이다. 일반적으로 이제마의 의학을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장리(臟理)와性情(性情)에 따라 4가지, 즉 태음인·소음인·소양인·태양인으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제마의 사상의학은 전통적 철학사상의 바탕 위에 허준의 의학사상을 융합시켜 나온 것으로 사상의학의 철학정신은 우주의 구성요소와 사물의 생성변화요소를 규명한 데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민족의학인 한의학은 '향약' 시대를 거쳐 조선조에 이르러 '마음'과 '몸'을 함께 다스리는 '심신의학', 몸의 형상과 마음의 성정에 따른 '체질의학'이 나오면서 민족의학으로서의 자주의학이 성립되었다.

'동의학' 체계적 재정립 없이 '漢醫'를 '韓醫'로 변경

그러나 19세기 개항 이래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우리 나라의 전통의학사상 및 의료체계에 변화가 일어나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학인 한의학은 제도권에서 밀려나 민간의학으로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1951년 9월 25일 부산임시국회에서 국민의료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이 국민의료법에 '한의사(漢醫師)제도'가 포함됨으로써 우리 나라에 한의학이 제도권의학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86년 5월 국회에서 '한의(漢醫)를 '한의(韓醫)로 표기하는 지구 변경법이 공포(법률 제3825조), 공식적 명칭이 '한의사(韓醫師)', '한의원(韓醫院)' 등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미 중국에서는 '한의(漢醫)를 '중의(中醫)로 바꾼 것이 우리보다 앞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한의(韓醫) 명칭 변경은 중국이 '한의학(漢醫學)을 해방 후 '중의학(中醫學)'이라고 고친 것과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즉 중의학은 기존 한의학(漢醫學)을 헤겔의 변증법적 유물사관으로 재해석하여 체계화한 것으로 그것은 물질관에 입각한 과학적 의학이다.

우리 나라나 중국이나 해방 이전의 한의학은 다 같이 '내경'의 철학사상을 기본이론으로 한 것으로 우리 나라는 허준과 이제마에



사상체질의학을 창시, 우리나라 의학사에 불후의 자취를 남긴 조선말기 한의학자 이제마 선생(사진제공 = 연합뉴스)

이러 우리 나라 사람의 체질·기후·풍토에 맞는 '동의학(한의 학)'이 마련되었으나 체계적으로 재정립시키지 못한 채 '한의학(漢醫學)'을 '한의학(韓醫學)'으로 명칭만 바꾸었다. 이는 '중의학'처럼 새로운 체계정립을 하지 못한 채 중의학이나 서양의학을 따르고 있어 실제 한의학(韓醫學)의 정체성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족의학을 고수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한의학의 과학화나 중의학의 변증논치는 한의학의 변질이며 더 나아가 의료일원화는 민족의학의 말살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항동관·정체관에 기초, 현대의학과는 달라

한의학에서는 일찍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자연과 인간의 독립된 개체로 대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응적 관계에서 '항동(恒動)'하고 있는 '통일적 정체'에 있다고 보고 인체의 생리·병리현상을 자연변화의 영향과 제약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여기서 '정체관'이란 자연과 인간, 체내의 장과 장, 부와 부, 경락과 경락은 모두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제약 속에서 상호평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전체성 또는 전일성의 인체관이다. '항동관'은 이러한 통일적 정체관계를 정지 상태에 있는 단순한 물질로서의 연계가 아닌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 생명체로서의 연계로 보면서 이러한 전일적 정체의 평형유지가 건강한 상태로 이를 '동태평형'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의학의 기본원리가 되는 음양론·오행론·천인상응론·항해승제론 등은 모두 이러한 항동관과 정체관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또한 항동관과 정체관의 밑바탕에는 기의 철학적 사상이 깔려있다. 기의 특징에는 '운동성'과 '관계성'이 있으며 이로부터 '변화'와 '전일' 개념이 도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의학 특성은 '전일개념'의 유기적 관점과 '항동개념'의 동태성 평형관점에 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원자론적 관점에서 인체를 세포란 물질로 보고 질병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체'가 되었고, 의학은 이러한 실체를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발견(진단)하여 그것을 제거하거나 교정(치료)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의학관은 분절적·분석적·객관적인 특성을 띠게 되면서 다른 과학 분야의 성과와 만나면서 '과학적 의학'을 탄생시켰다.

실체는 정지상태의 물질로 이것은 정량·정성화할 수 있으나 운동하고 있는 원기는 정량·정성화하기가 어렵다. 또한 민족의학을 정립한 허준은 인체를 몸과 마음이란 심신일원론적 입장에서 보면서도 마음을 중시하였으나 이 마음 또한 물질이 아니므로 객관화할 수 없으며, 이제마는 인체를 성정(性靑)과 장국(臟局)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여 체질론을 제창하였으나 이 역시 지금까지의 과학적 방법으로는 객관화에 한계점이 있다.

과학적 잣대로만 따지면 한의학 변질

일반적으로 한의학이 과학적 의학과 다른 점을 말한다면 과학적 의학은 의식구조에서 볼 때 자아적 세계의 체계이고, 한의학은 통자아적 세계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자아적 세계는 이분법적 의식 체계이나 통자아적 세계는 '너'와 '나'가 분별되지 않은 '불이'의 전일적 의식 체계이다. 민족의학자들이 한의학의 과학화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한편 동의보감에서 허준은 우리 의학은 중국에 남·북 의학이 있듯이 우리 나라는 중국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의학'이라 한다 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우리 체질에 맞게 약의 사용분량, 수치방법 등을 제시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한의학에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의지가 깃들어 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한의학을 과학적 잣대로 따지면 한의학의 특징은 사라진 채 변질된 한의학만이 남게 된다. 이는 마치 한복웃감을 양복을 만드는 자로 재어 옷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은 한복이 아닌 양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근대과학의 개념은 결정론적·기계론적 세계관의 기초를 이루



어 근대과학의 패러다임을 이루었다. 그러나 고전 동역학에 의해 근래 연구된 여러 형태의 운동은 이와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초기상태에 작은 차이만 있어도 시간에 따른 궤적에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실제적인 면에서는 큰 의미를 잃게 되었다. 민족의학인 한의학의 개념은 불확정론적·유기론적 세계관에 기초를 둔 의학체계다. 따라서 근대과학의 개념으로 한의학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수적 입장의 민족의학자들이 한의학의 과학화를 부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현대의학인 과학적 의학은 과학적 속성을 얻은 대신 전인적 모습을 잃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사는 고통 받는 환자를 돌보는 '따뜻한' 인술자에서 질병을 연구하는 '차가운' 과학자로 그 역할이 바뀌어가고 있다. 따라서 서양의 과학적 의학은 의학의 지평에서 환자(인간)는 사라지고 질병만 남게 만든다. 이 점 또한 민족의학자가 한의학의 과학화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의 하나다.

현대과학이론으로 한의학 객관화 가능

그러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계화 과정 속에서 한의학의 과학화를 반대만 하여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이제 세계는 동·서의 지역적 개념이 무너져 시·공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 놓아야 보배다'란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민족의학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을 세계 속에 알려야 그 가치가 인정되고 빛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인식론의 방법이다.

인식론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남에게 알려줘 그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방법의 하나다. 일반적으로 한의학을 철학이라 하고 서양의학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 자체가 철학이고 서양의학 자체가 과학이란 말이 아니라 그 인식하는 방법이 한의학은 철학적이고, 서양의학은 과학적이란 말이다. 이렇게 볼 때 과학적 인식을 토대로 한 세계인에게 한의학을 알리려면 한의학의 철학적 방법이 과학적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근대과학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이 한의학자들이 고민하는 점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20세기 이후 고전 동역학의 결정론적 세계관에 비판을 하면서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한 그룹이 있다. 하나는 1950년대 이후 칸트, 헤겔, 베르그송, 화이트헤드 등 유기체 철학자들로 이어져 버트란피, 프리고진, 안지 등 유기체 과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체계과학론자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1970년대 중반부터 미

국 등지에서 카프라와 같이 고전 동역학에 대비하는 양자역학의 여러 특징에서 현대사고의 과학적 근거를 찾으려는 신과학운동자들의 새시대과학자들이다. 따라서 한의학을 고전물리학이 아닌 현대 유기체과학이나 양자역학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설명한다면 한의학의 객관적 인식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민족의학으로서의 한의학 정체성 살려야

한의학의 과학화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한의학을 세계 속에서 고립시켜 골동품으로 만들려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한의학을 무조건 과학화해야 한다며 근대과학의 잣대로만 들이대 마름질하려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한의학의 과학화의 방법이 가능할 때 한의학의 과학화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고 잃는 것이 무엇인가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한의학의 과학화는 시대적 대세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의 민족의학을 세계시장에 내놓으면 충분한 상품가치가 있어 경쟁력과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고 큰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의학을 시장논리에만 치우쳐 과학기술에만 내몰면 인간성이 상실돼 따뜻한 의사는 없어지고 차가운 과학자만 남는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의 의료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에서는 무조건 시장경제논리에만 초점을 맞추어 신약개발이나 의료기기 개발에만 중점을 두지 말 것이며, 또한 의료연구과제 평가를 과학기술의 잣대로만 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면 한의학자들도 이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실험적 연구만을 하게 된다. 이러한 때 이는 약물만 한약이지 그 내용은 과학이 되어 한의학의 정체성이 고사되어 의료일원화를 스스로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의학계는 1992년 '의약분쟁'에서 '민족의학 수호'란 큰 무기를 가지고 제도권의학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지원도 받아냈다. 그러나 이 민족의학이 구호성으로만 그치고 학문적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채 과학적 기술에만 의존한다면 민족의학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 이점이 오늘의 한의학계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정부의 의료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에서도 실험만을 위주로 하는 연구과제에만 연구비를 지원하지 말고 인문학적 면에서의 기초이론연구 및 의철학이나 의학윤리에도 연구비를 지원하여 민족의학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67



글쓴이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장, 원광대학교 한의학 연구소장, 대한한의학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